

# 명리(名利)와 업화(業火)의 상관관계: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나타난 명리 정책과 수행윤리 구조

강영미(현수)\*

##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업화의 사상적 기원
    - 1. 출가의 본의와 명리 부정
    - 2. ‘무상지화’와 화택(火宅)의 수행론
    - 3. 업(Karma)의 체계적 분류와 업화의 메커니즘
    - 4. 초기 불교 경전의 「불타오름의 경」과 ‘번뇌지화’
    - 5. 자신에 관한 명리 추구하고 괴로움의 인과적 관계
  - III. 『선가귀감』의 명리 정책과 ‘업화가신’
    - 1. ‘업화가신’의 인과관계
    - 2. ‘명리납자’의 실존 문제
  - IV. 명리 정책의 현대적 함의
    - 1. 자본주의적 ‘공덕 쌓기’에 대한 성찰과 본질적 보시의 회복
    - 2. ‘양질호피’의 현대적 양상과 수행 공동체의 윤리
    - 3. ‘초의야인’의 수행윤리와 명리 차단 실천
  - V.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강사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선불교의 중흥조인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 나타난 ‘명리 경책(名利警策)’과 ‘업화가신(業火加薪)’의 인과론적 구조를 분석하고, 그 수행 윤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가귀감』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일물(一物)’을 밝히는 존재론적 가르침과 더불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통을 경계하는 실천론적 지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57장부터 제60장까지는 출가의 본의, 수행의 긴급성, 명리 경계, 수행자의 정체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59장의 ‘업화가신’ 비유는 세속적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수행자의 지혜를 약화시키고 번뇌의 불길인 업화(業火)를 증폭시키는 인과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는 업을 단순한 과거 행위의 결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의 행위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살피게 하는 수행윤리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휴정의 명리 경책을 초기 불교의 업론 및 현대 불교윤리학과 연결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종교적 실천조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인정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휴정이 경계한 ‘양질호피(羊質虎皮)’의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은 세속적 가치가 수행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행자의 정체성을 성찰하게 하는 수행윤리적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업화가신’의 논리는 탐욕과 집착의 연료를 차단함으로써 업의 악순환을 멈추고 본래의 ‘일물’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개인의 수행과 사회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현대 불교 수행윤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선가귀감, 업화가신, 명리 비판, 불교윤리, 불교 인성론

## I. 들어가는 말

『선가귀감(禪家龜鑑)』은 조선 중기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이 당시 불교계의 수행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수행자가 견지해야 할 본질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편찬한 문헌이다. 본서는 경전과 선문 어록 중 핵심적인 구절을 선별하여 편집한 지침서로, 1564년 서문 작성 후 1579년 사명 유정 등에 의해 초판이 간행된 이래(우정상, 1977: 164) 한국 선가의 가장 권위 있는 수행 교재로 전승 되어왔다.

『선가귀감』은 조선 사회의 승유억불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제도적으로 위축된 상황 속에서 단순한 수행 지침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당시 조선시대의 불교계를 돌아볼 수 있는 문헌으로 수행자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선가귀감』에서 휴정은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선주교종(禪主教從)’의 통합적 수행 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수행자가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집착과 병통을 경계하고자 하였다.

『선가귀감』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분류가 있는데, 우선, 우정상의 논문에서 『선가귀감』전체를 다섯 장의 과목으로 나누었고, 원리론, 불조론, 선교론, 방법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준희, 2023: 88). 또, 『정선 휴정』(김영옥, 2010)에서는 ‘일물,

1) 『禪家龜鑑』(X63, 456b), “禪是佛心 敎是佛語.”

교외별전, 선교의 동이점, 화두참구와 그 요소, 마음의 근원, 실천의 조목, 염불, 경전의 인연, 수행에 대한 경책과 바른길, 병통과 화두의 본질, 각 종파의 법계와 법문의 특징 및 입제종지, 방과할의 본질, 맺음'으로 나누고 있다. 『선가귀감』(김호귀, 2013)에서는 '본분과 신히, 선교의 차별, 화두의 참구, 신히의 자세, 수증의 기초, 수행의 방편, 출가의 정신, 선종의 오가, 무집착과 무분별'로 나누고 있다. 또한 통광 스님은 강론에서 '원리론, 불조론, 선교론, 심성을 깨치는 방법(수행론)'으로 구분하였다. 우정상의 경우 다섯 과목으로 간략하게 구분하고 있는 반면, 김영욱의 경우 열세 과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김호귀의 경우 아홉 개의 과목으로 나누었는데, 전체 81장으로 구분한 한국불교전서와는 달리 103장으로 구분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김준희, 2023: 88). 이처럼 『선가귀감』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별로 다르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양·배규범(2006)이 제시한 『선가귀감』의 사상 전개와 수행 단계의 구조에 대한 구성 분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은 본서를 불법의 근본 원리로부터 선교의 관계, 수행 방법론, 수행자의 병통과 경책, 종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분류하였다(〈표 1〉).

휴정은 수행의 출발점으로 마음의 본래 성품인 '일물(一物)'을 제시<sup>2)</sup>하는 동시에, 실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착과 병통을 경계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고의 주된 분석 대상인 후반부 '스님의 자세와 경책'은

2) 『禪家龜鑑』(X63, 456a), “有一物於此 從本以來 昭昭靈靈 不曾生 不曾滅 名不得 狀不得.”

〈표 1〉 선가귀감 내용 구성

| 장       | 내용                  |
|---------|---------------------|
| 1장-4장   | 불법의 원리와 우주의 근본을 밝힘  |
| 5장-11장  | 선교를 논함              |
| 12장-56장 | 간화선의 수행과 방편         |
| 57장-78장 | 스님의 자세(병통)와 경책      |
| 79장-80장 | 5종의 법통과 가풍, 임제종의 종지 |
| 81장     | 결론(원래를 재론)          |

출처: 박재양 · 배규범(2006: 11).

본래 마음의 자각(존재론)과 수행 과정의 오류 교정(실천론)을 동시에 조명하는 이중적 구조의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전체 81장 중 제57장부터 제78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행자의 자세와 병통에 대한 경책(警策)을 다루는데, 특히 제57장부터 제60장까지는 출가의 본의, 수행의 긴급성, 명리 경계, 수행자의 정체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구조적 흐름을 바탕으로, 휴정이 제시한 명리 경책의 수행윤리적 의미와 ‘업화가신(業火加薪)’의 인과론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가귀감』과 청허 휴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불교의 선교통합적 전통을 계승한 핵심 인물과 텍스트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 차원에서만 진행된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는 크게 불교학적 관점과 판본 및 서지학적 관점으로 나뉘며, 본고의 주제인 수행론과 사상적 배경에 부합하는 주요 논문 9편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우선 최초의 『선가귀감』연구 논문으로, 텍스트 전체를 분석한 가장 정통한 연구 논문으로 우정상(1977)의 연구가 있다. 선교관(禪敎觀) 및 사교입선(捨敎入禪)에 관해 고찰한 연구로는 고영섭

(2017), 김용태(2015), 김호귀(2015), 신법인(1982)이 있는데, 고영섭(2017)은 ‘선교분기(禪敎分岐)’ 개념을 통해 교학이 선의 배경이자 선교겸수의 전 단계임을 밝히고 법통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용태(2015)는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사교입선’이라는 용어가 휴정의 직접적 표현이 아닌 19세기 후반 문헌에서 등장한 용어임을 밝혀 연구의 정밀함을 더했다. 김호귀(2015)는 휴정의 선교 융합이 교학에 근거하면서도 선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선주교종’의 형태로 변천했음에 주목하였고, 신법인(1982)은 사교입선을 강조하면서도 교를 선에 들어가는 필수적 방법론으로 긍정한 휴정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수행 방법론적인 측면의 연구로는 이병욱(2020)이 있는데, 천태의 십승관법과 『선가귀감』을 비교하여 화두 참구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유사성을 고찰하였다. 선정쌍수(禪淨雙修) 및 염불선에 관한 연구로는 강신보(2003), 전준모(2018)가 있는데, 강신보(2003)와 전준모(2018)는 선과 염불의 조화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전준모는 ‘일심(一心)’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력의 참선과 타력의 염불이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행 윤리적 측면의 육바라밀 연구로는 박기남(2020)이 있는데, 박기남(2020)은 『선가귀감』에 나타난 수행의 내용을 육바라밀 체계로 이해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선교후선 및 사교입선의 논리 구조 분석, 화두 참구의 방법론, 염불과 선의 관련성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이 교학적 체계나 수행 방법론에 치우친 것과는 달리, 『선가귀감』 후반부에 나타난 수행자의 윤리적 경책 구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특히 제57장부터 제60장에 이르는 출가의 본의, 수행의 긴급성, 명리 경계, 수행자의 정체성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찰

한 연구는 부족하다.

제57장은 출가의 목적이 ‘출삼계 도중생(出三界 度衆生)<sup>3)</sup>’에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58장은 ‘무상지화(無常之火)<sup>4)</sup>’와 ‘여구두연(如救頭燃)<sup>5)</sup>’의 비유를 통해 수행의 절박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수행론적 전제 위에서 제59장은 ‘업화가신(業火加薪)<sup>6)</sup>’이라는 비유를 통해 명리 추구가 수행자의 내면에서 어떠한 인과적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제60장은 명리에 몰든 수행자와 초야의 야인을 대비시킴으로써 수행자의 실존적 태도를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선가귀감』 제57장부터 제60장까지의 구조적 흐름을 중심으로, 휴정이 제시한 수행 윤리의 특징과 ‘업화가신’의 인과론적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명리 정책이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 수행자의 정체성과 업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드러내는 수행론적 장치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선가귀감』을 선택하여 ‘업화가신’의 인과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 수행의 사상적 토대와 실천적 윤리의 유기적 결합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전반부의 ‘일물’이나 선교통합론 등 형이상학적 담론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수행의 성패는 깨달음의 논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방해하는 내면의 오염원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59장의 ‘업화가신’ 비유가 본래의 청정한 마음[一物]을 회복하기 위

3) 『禪家龜鑑』(X63, 460c), “出家爲僧 豈細事乎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非求利名也 爲生死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也.”

4) 『禪家龜鑑』(X63, 460c), “佛云 無常之火 燒諸世間 又云 衆生苦火 四面俱焚.”

5) 『禪家龜鑑』(X63, 460c), “道人宜自警悟 如救頭燃.”

6) 『禪家龜鑑』(X63, 742a), “貪世浮名 枉功勞形 營求世利 業火加薪.”

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인과론적 필수 장치’임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업(Karma)에 대한 숙명론적 오해를 불교 본연의 ‘의도적 행위’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통 불교 교학은 미래의 선과를 위해 현재의 업을 바르게 짓는 인행(因行)을 강조해 왔으나, 현대 사회 일각의 기복적 변용 속에서 업을 과거의 산물로만 치부하는 수동적·숙명론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휴정의 ‘가신(加薪)’ 논리는 바로 이러한 수동적 태도를 타파하고 ‘지금 여기’의 주체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업설이 지닌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수행자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윤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침투한 현대 불교계에 수행자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대는 종교적 가치조차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평판으로 환원되기 쉬운 시대이다. 휴정이 경책한 ‘명리납자(名利衲子)’나 ‘양질호피(羊質虎皮)’<sup>7)</sup>의 비유는 명리를 좇는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수행자의 본질을 파괴하는 ‘업의 불길’을 지피는 행위임을 직시하게 한다. 본 연구는 ‘업화가신’의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외적 성공[名利]이 아닌 내적 청정[一物]을 지향하는 것이 수행자의 실존적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가귀감』 제57장부터 제60장까지의 구조적 흐름을 중심으로, 출가의 본의와 수행의 긴급성, 명리 경계와 수행자의 정체성이 어떠한 수행·윤리적 구조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제59장의 ‘업화가신’ 비유를 중심으로 명리와 업화의 인과적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제

7) 『禪家龜鑑』(X63, 742a), “名利衲子 不如草衣野人 唾金輪 入雪山 千世尊不易之軌則 末世羊質虎皮之輩 不識廉耻 望風隨勢 陰媚取寵 噫 其懲也夫.”

60장에 나타난 수행자 유형의 대비를 통해 휴정이 제시한 수행 윤리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세속적 가치가 수행의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현대적 상황에서 수행자의 본분과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업화(業火)의 사상적 기원

휴정이 『선가귀감』 제59장에서 제시한 ‘업화’라는 용어는 선종의 독자적인 비유를 넘어, 불교가 발생한 초기 불교 시기부터 이어져 온 번뇌의 상징적 표현이다. 불교 문헌에서 번뇌와 업보를 ‘불[火]’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 지닌 파괴성과 증폭성, 그리고 주체를 태워버리는 고통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특히 『선가귀감』 제57장과 제58장은 출가의 본의와 수행의 긴급성을 통해 제59장의 ‘업화가신’ 논리를 위한 수행론적 전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장에서는 제57장과 제58장에 나타난 출가 정신과 무상관(無常觀)을 중심으로, ‘업화’의 사상적 원류와 인과적 구조를 초기 불교의 경전적 근거와 함께 규명하고자 한다.

### 1. 출가의 본의와 명리 부정

『선가귀감』 제57장에서 휴정은 출가의 목적이 안일과 온포(溫飽),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

출가하여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함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며, 배부름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생사를 면하고 번뇌를 끊으며,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sup>8)</sup>

이는 출가수행의 본질이 세속적 성공이나 사회적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사 해탈과 중생 제도라는 실존적 과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출가의 목적이 “명리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非求利名也)”라고 하는 표현은 명리 추구 자체가 출가의 본의와 상충되는 것임을 명확히 드러낸다. 휴정은 수행자의 삶을 단순한 종교적 직업이나 제도적 신분이 아니라, 생사와 번뇌를 끊기 위한 철저한 실천의 길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출가 정신은 이후 제59장에서 전개되는 ‘업화가신’ 논리의 수행론적 전제가 된다.

또한 휴정은 출가수행의 궁극적 목적을 ‘출삼계 도중생(出三界度衆生)<sup>9)</sup>’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해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계를 벗어난 뒤 다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는 대승적 수행관을 보여준다. 『화엄경(華嚴經)』에서 말하는 “자신을 위하여 안락을 구하지 않고, 다만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不爲自己求安樂 但願衆生得離苦)<sup>10)</sup>”는 정신 역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따라서 명리를 좇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출가수행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근본적 병통으로 이해될 수 있다.

8) 『禪家龜鑑』(X63, 460c), “出家爲僧 豈細事乎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非求利名也 爲生死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

9) 『禪家龜鑑』(X63, 460c), “出家爲僧 豈細事乎 非求安逸也 非求溫飽也 非求利名也 爲生死也 爲斷煩惱也 爲續佛慧命也 爲出三界度衆生也.”

10) 『大方廣佛華嚴經』(T10, 127a), “不爲自己求安樂 但願衆生得離苦.”

## 2. ‘무상지화’와 화택(火宅)의 수행론

『선가귀감』제58장에서 휴정은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태운다 (無常之火 燒諸世間)’라고 하며, 중생 세계 전체가 이미 불길 속에 놓여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상의 불길이 세상을 태운다’ 하였고, 또 ‘중생들의 괴로움의 불길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타고 있다’ 하셨으며, 또 ‘온갖 번뇌의 도적이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다’ 하셨으니,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 알아차려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해야 할 것이다.<sup>11)</sup>

휴정은 인간 존재가 생로병사와 번뇌의 불길 속에 둘러싸여 있음을 ‘사면구분(四面俱焚)’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이는 『법화경(法華經)』의 ‘삼계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三界無安 猶如火宅)<sup>12)</sup>’라는 사상과도 연결되며, 수행자가 살아가는 세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공간임을 의미한다. 즉, 불교의 수행은 평온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자기 수양이 아니라, 이미 불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존적 실천인 것이다.

특히 휴정은 『선가귀감』에서 수행자가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것과 같이(如救頭燃)의 자세로 정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생사와 번뇌의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며, 수행의 긴급성과 절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1) 『禪家龜鑑』(X63, 460c), “佛云 無常之火 燒諸世間 又云 衆生苦火 四面俱焚 又云 諸煩惱賊 常伺殺人 道人宜自警悟 如救頭燃.”

12) 『妙法蓮華經』(T09, 14c), “三界無安 猶如火宅 衆苦充滿 甚可怖畏 常有生老 病死憂患 如是等火 熾然不息.”

수행자는 무상과 번뇌의 불길 속에서 한순간도 방일해서는 안 되며,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무상지화’와 ‘번뇌지화(煩惱之火)’의 구조 위에서 제59장의 ‘업화가신’은 단순한 도덕적 경책이 아니라, 이미 불타고 있는 세계에 다시 탐욕의 연료를 더하는 수행적 퇴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업(Karma)의 체계적 분류와 업화의 메커니즘

휴정이 경책한 명리와 업화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제시된 업의 체계적 분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석가모니불은 업을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수행자의 의도와 그에 따른 인과적 결과에 따라 이를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앙굿따라 니까야』, 「업 품(Kamma-vagga)」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업이 있나니 이것은 내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앙굿따라 니까야』, 「업 품」(AN4: 232)).

석가모니불은 업을 단순히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수행의 목적에 따라 범주화하였는데, 이는 ‘업화가신’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학적 근거가 된다.

석가모니불이 설명한 네 가지 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不善業]이다. 이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계율을 어기는 해로운 의도적 행위를 의미하며, 지옥이나 악처 등 불행한 곳에 태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휴정의 관점에서 세속적 이익을 경영하고 구하는 ‘영구세리(營求世利)’의 행위는 비록 세간의 눈에는 정당해 보일지라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탐욕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 검은 업의 씨앗을 품고 있다. 둘째,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 업[善業]이다. 타인을 이롭게 하거나 공덕을 쌓는 유익한 의도로 짓는 선행을 의미하며, 천상이나 선처 등 행복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 동력이 된다. 셋째, 검고도 흰 과보를 가져오는 혼합업으로, 선과 악의 의도가 결합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이 혼재된 세속적 삶의 결과를 낳는다. 세속적인 삶 속에서 대개 범부들은 이 범주에 머물며 더 나은 환생을 위한 ‘공덕 쌓기(Puñña)’에 집중하지만, 휴정은 이러한 세속적 성취조차 결국 ‘나’라는 아상(我相)을 강화하여 번뇌의 불길에 연료를 보태는 ‘가신(加薪)’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경각심을 울리고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업으로 검지도 희지도 않으며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업(모든 업을 끝내는 업)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업(검은 업 · 흰 업 · 혼합업)의 굴레를 모두 초월하여 업의 발생 기제 자체를 종식시키는 수행적 실천을 의미한다.

석가모니불은 이를 도성제에 대한 방법론인 ‘팔정도(八正道)’의 실천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란 무엇인가?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惟],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계[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라 한다(『앙굿따라 니까야』, 「업 품」(AN4: 237)).

이에 대해 왓츠(2014)의 『까르마의 재해석(Rethinking Karma)』에서 붓다다사(Buddhadasa, 1906-1993)는 이것이야말로 불교적 측면의 업의 소멸이라고 강조한다(Jonathan S. Watts, 2014: 4).

이러한 업의 네 가지 분류법을 『선가귀감』 제59장에 대입하면 ‘업화가신’의 인과 구조가 선명해진다. 수행자가 명리를 구하는 행위는 검은 업이나 혼합 업의 범주에 해당하여 생사윤회의 악순환 속에 업의 짐을 더하는 행위이며, 이는 곧 지혜를 말라붙게 하는 업화를 키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반면, 휴정이 『선가귀감』에서 강조한 명리에 흔들리지 않는 지조와 연료의 차단은 곧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네 번째 업’의 실천이자, 본래 소소영영(昭昭靈靈)한 ‘일물’을 드러내게 하는 길인 것이다. 결국 휴정의 명리 정책은 단순한 도덕적 청빈을 넘어, 업의 메커니즘을 통찰함으로써 현재의 의도적 행위를 통해 업의 종속으로부터 해방되려는 선종 수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화의 인과 구조는 부파불교의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이 직면했던 ‘업의 저장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답이기도 하다. 부파불교의 교학에서는 유위전변하는 신심(身心)의 어디에 업력이 보존되는가 하는 맹점을 가졌으나, 휴정은 과거의 업보를 논하는 관념적 논쟁을 떠나 ‘지금 여기’라는 실존적 정진의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연료를 투여하는 ‘가신(加薪)’의 현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 4. 초기 불교 경전의 「불타오름의 경」과 ‘번뇌지화’

업화 사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류는 초기 불교 경전인 『상윳따 니까야』의 「불타오름의 경」에 번뇌를 타오르는 불(aggi)에 비유한 것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석가모니불은 「불타오름의 경」에서 온 세상이 탐욕의 불(Rāgaggi), 성냄의 불(Dosaggi), 어리석음의 불(Mohaggi)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눈은 불타오르고 있다. 형상도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알음알이도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달음도 불타오르고 있다. 눈의 달음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모든 느낌 또한 불타오르고 있다. 무엇에 의해 불타오르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성냄의 불에 의해,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비탄·고통근심·절망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상윳따 니까야』, 「불타오름 경」(SN35: 28)).

석가모니불은 세상의 모든 것이 “탐욕의 불(Rāgaggi), 성냄의 불(Dosaggi), 어리석음의 불(Mohaggi)에 의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라각기’는 수행자의 내면을 태우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로 설정되며, 이는 훗날 휴정이 경책한 ‘업화’의 원형적 개념이 된다. 경전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육근(六根)과 그 대상인 육경(六境)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느낌까지도 모두 불타오르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수행자가 명리와 같은 외적 대상에 관심을 두는 순간, 번뇌의 발화점에 서게 된다는 것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 5. 가신에 관한 명리 추구하고 괴로움의 인과적 관계

업화가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동력은 탐욕인데, 이는 불교의 근본 교설인 사성제(四聖諦) 중 집성제(集聖諦)에서도 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초기 경전인 『상윳따 니까야』, 『초전법륜경』에서 석가모니불은 ‘괴로움의 일어남[集]의 성스러운 진리란 미래의 존재를 가져오고, 기쁨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갈애(tanhā)’라고 규정하며, ‘갈애’를 괴로움의 근원적 원인으로 지목하였다(『상윳따 니까야』, 『초전법륜경』(SN56: 11)). 수행자가 명리를 경영하고 구하는 ‘영구세리(營求世利)’의 행위는 곧 이 갈애를 실천적으로 증폭시키는 과정이며, 불교의 인과론적 관점에서 이는 불타는 화로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업은 현재의 나쁜 상황에 대한 단순한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무명(avijjā)과 형성 작용(saṅkhāra)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의도적 행위이다. 갈애에 기반한 의도적 행위가 반복될 때, 업의 불길은 더욱 거세지며 이는 곧 윤회의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인과적 필연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명리와 업화의 상관관계는 ‘가연적 촉진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명리에 대한 탐착이 가중되어 땀감이 공급될수록 업화는 치솟고 일몰은 가려지지만, 반대로 명리를 멀리하여 연료를 차단하면 업화는 소멸하고 일몰은 스스로 현현하기 때문이다.

선가귀감의 제59장의 핵심 논리는 세속적 이익을 경영하고 구하는 ‘영구세리(營求世利)’가 수행자의 내면을 태우는 ‘업화가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있다. 휴정은 ‘거칠고 낡은 색깔과 냄새[麤弊色香]’를 불을 내는 도구인 ‘치화지구(致火之具)’라 정의한다. 이는 명예와 이익이라는 감각적 대상이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이를 소유하려 들 때 번뇌의 불길을 지피는 강력한 땀감[薪]으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수행자가 명리를 좇는 의도적 행위는 번뇌의 화로에 끊임없이 연료를 보태는 행위와 같다. 연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한, 수행자의 지혜와 청정한 기운은 업의 불길에 의해 말라붙게[業火乾枯] 되며, 이는 결국 수행적 파멸로 이끄는 강력한 인과적 고리를 형성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휴정의 명리 정책은 단순한 금욕의 강조가 아니라, 업의 메커니즘을 통찰하여 번뇌의 연료를 차단하라는 실천적 조언이다. 수행자가 명리라는 땀감을 거두어들여 ‘업화가신’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은, 깨달음의 성취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 아니라 인과론적으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연적 과정인 것이다.

### Ⅲ. 『선가귀감』의 명리 정책과 ‘업화가신’

#### 1. ‘업화가신’의 인과관계

휴정은 『선가귀감』 제59장에서 수행자가 명리를 경영하고 구하는 행위가 내면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업화가신’이라는 비유를 통해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여기서 ‘가신’은 단순히 땀감을 더하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이 세속적

13) 『禪家龜鑑』(X63, 742a), “貪世浮名 枉功勞形 營求世利 業火加薪 貪世浮名者 有人詩云鴻飛天末迹留沙 人去黃泉名在家 營求世利者 有人詩云采得百花成蜜後 不知辛苦爲誰甜 枉功勞形者 鑿水雕刻 不用之巧也 業火加薪者 麤弊色香致火之具也.”

명예와 이익을 향해 반복적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업의 불길을 키워 가는 의도적 행위를 의미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업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막연한 결과만을 뜻하지 않는다. 업은 현재 이 순간 무명과 갈애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의도적 행위이며, 그 행위는 다시 새로운 마음의 습관과 조건을 형성한다. 수행자가 명예와 이익을 좇아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은 번뇌의 화로에 새로운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업화가신’은 명리 추구가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내면에서 업과 번뇌를 증폭시키는 인과적 과정임을 보여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신’의 구조는 유식학(唯識學)의 종자(種子)·현행(現行)·熏습(熏習)의 관점에서 그 인과적 작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유식학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과 행위는 아뢰야식에 저장된 종자가 현행으로 드러나고, 그 현행이 다시 종자를熏습하는 반복적 흐름 속에서 전개된다<sup>14)</sup>. 이를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에 적용하면, 수행자의 내면에 잠재된 명리 추구의 습기(習氣)는 외적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 현행으로 드러나고, 그 현행의 탐착은 다시 아뢰야식에 새로운 오염의 종자를 심는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 명리의 마음은 더욱 강화되고, 수행자의 지혜는 점차 흐려진다.

따라서 ‘가신’은 단순한 비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명리 추구가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심층적 인과 구조이다. 명리라는 외부 대상 자체가 곧바로 업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행자가 그 대상을 소유와 인정, 자기

14) 『成唯識論』(T31, 40a), “緣且有四 一因緣 謂有爲法親辦自果 此體有二 一種子 二現行 種子者 謂本識中善染無記諸界地等功能差別 能引次後自類功能及起同時自類現果 …… 現行者 謂七轉識及彼相應所變相見性界地等 除佛果善 極劣無記 餘熏本識生自類種.”

확대의 근거로 삼을 때 발생한다. 이때 명리는 번뇌의 불길을 지피는 땀감이 되고, 그 땀감을 공급하는 행위가 바로 ‘가신’이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원문에 나타나는 ‘혜수일고 업화일치(慧水日枯 業火日熾)’의 의미도 분명해진다. 명리에 대한 탐착이 커질 수록 본래의 지혜를 상징하는 ‘혜수’는 마르고, 탐욕과 번뇌의 불길인 ‘업화’는 더욱 치성해진다. 이는 초기불교의 『불타오름의 경』에서 설한 탐욕·성냄·어리석음의 불길이 수행자의 감각과 마음 작용 속에서 확산되는 과정과도 상응한다. 결국 휴정은 명리 추구가 개인적 기호나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수행자의 지혜를 약화시키고 업의 흐름을 증폭시키는 인과적 행위임을 경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리의 연료를 차단하는 일은 단순한 의지적 절제나 청빈의 권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오염된 습기의 흐름을 멈추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수행론적 전환이다. 이 점에서 ‘업화가신’은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을 관통하는 핵심 비유이며, 수행자가 자신의 행위와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는 수행윤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 2. ‘명리납자’의 실존 문제

『선가귀감』 제59장이 명리 추구의 인과 구조를 ‘업화가신’이라는 비유로 설명하였다면, 제60장은 그 결과가 수행자의 존재 방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인 인간 유형의 대비를 통해 보여준다. 휴정은 명리에 물든 수행자를 ‘명리납자’라 부르고, 말세의 병통을 ‘양질호피’라는 비유로 경책한다. ‘양질호피’는 속은 양이면서 겉으로는 호랑이 가죽을 쓴 모습이다. 이는 내면에는 수

행자의 덕과 지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외적으로는 권위와 위엄을 꾸미는 태도를 뜻한다.

‘명리납자’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위선에만 있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행자의 정체성이 외적 형식과 내적 의도 사이에서 분열된다는 데 있다. 겉으로는 수행자의 형색을 갖추고 불법을 말하지만, 내면의 방향이 여전히 명예와 이익을 향해 있다면, 그 행위는 수행이 아니라 명리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행자는 ‘무아’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라는 의식과 소유의 욕망을 강화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휴정은 이러한 ‘명리납자’들과 대비하여 이름 없는 ‘초의야인(草衣野人)’의 고결함을 강조한다. 세속의 눈에는 비천해 보일지라도 명리의 땀감을 거두어들인 야인의 삶이야말로, 번뇌의 불길을 끄고 본래의 ‘일물’을 드러내는 진정한 수행자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행자의 정체성은 외적인 제도나 신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행위(업)를 짓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겉모양만 수행자인 ‘양질호피’의 삶은 결국 업의 짐을 무겁게 할 뿐이지만, 명리를 차단한 야인의 삶은 업의 소멸을 향한 수행적 방향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은 업의 메커니즘을 역으로 돌려 본래의 청정함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가르침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화가신’이 명리 추구로 인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보여준다면, ‘명리’라는 땀감을 제거하는 행위는 괴로움의 소멸을 향한 구체적 방법론이 된다. 연료가 차단되면 업의 불길은 자연히 사그라들고, 지혜의 물이 차오르면서 번뇌에 가려졌던 소소영영한 ‘일물’이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업을 넘어서는 삶은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먼 이상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명리에 대한 갈애를 끊어내는 현재적 실천 속에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열반을 향한 수행의 길을 현실 속에서 열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휴정이 제시한 명리 차단(斷)의 수행 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 수행자가 자신의 실존을 ‘업의 종속’에서 ‘업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다. 서리 맞은 소나무처럼 명리를 멀리하는 수행자의 깨끗한 지조는 업화의 연료를 거두어들이는 결단이며, 동시에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수행이다. 이 점에서 ‘업화가신’은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을 관통하는 핵심 비유이자, 수행자의 내면과 행위, 그리고 업의 인과 구조를 함께 성찰하게 하는 수행 윤리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 IV. 명리 경책의 현대적 함의

### 1. 자본주의적 ‘공덕 쌓기’에 대한 성찰과 본질적 보시의 회복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은 조선 중기 출가 수행자의 병통을 경계한 법문이지만, 오늘날의 수행 현실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적 실천은 때때로 사회적 인정, 제도적 성취, 경제적 가치와 결합되기 쉽다. 특히 보시와 공덕의 실천은 본래 탐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미래의 복락을 기대하는 계산된 행위나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휴정이 경계한 ‘탐세부명’과 ‘영구세리’가 현대적

방식으로 재현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내어놓는 행위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과 자아 중심적 욕망을 약화시키는 수행이다. 그러나 보시가 더 큰 복을 얻기 위한 거래적 행위로 이해될 때, 그것은 탐착을 줄이는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대와 집착을 낳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때 공덕은 해탈을 향한 실천적 힘이 아니라, 세속적 안정과 명예를 축적하기 위한 상징적 자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왓츠(Watts, 2014: 4)가 소개한 붓다다사(Buddhadasa)의 업 이해 비판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그는 일반적인 업에 관한 교리가 “마치 더 만족스러운 환생을 위해 자산을 축적하는 것과 같이 변질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스스로를 업의 지배 아래에 두기를 원할 뿐, 그 업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종식을 위한 투쟁은 기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붓다다사는 업을 더 나은 환생을 위한 자산 축적의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태도가, 업의 소멸이나 해방을 향한 불교 본래의 수행 방향을 흐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휴정이 제59장에서 경계한 ‘영구세리’의 현대적 의미인 것이다.

세속의 이익을 경영하고 구하는 마음은 반드시 물질적 탐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적 행위조차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명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선가귀감』의 명리 정책은 현대 수행자에게 보시와 공덕의 동기를 다시 성찰하게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탐착을 줄이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명리의 연료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시의 회복은 외적 행위의 양을 늘리는 데 있지 않고, 그 행위의 의도를 청정하게 하는 데 있다. 보시가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탐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될 때, 그것은

업화에 땀나물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업화의 연료를 거두어들이는 실천이 된다. 이 점에서 『선가귀감』의 명리 경책은 현대 불교계가 공덕과 보시의 의미를 세속적 보상 논리에서 수행적 전환의 논리로 회복해야 함을 일깨운다.

## 2. ‘양질호피’의 현대적 양상과 수행 공동체의 윤리

『선가귀감』 제60장에서 휴정은 명리를 쫓는 수행자를 ‘명리납자’라 하고, 말세의 병통을 ‘양질호피’라는 비유로 경책하였다. ‘양질호피’는 속은 양이면서 겉으로는 호랑이 가죽을 쓴 모습이다. 이는 내면에는 수행자의 덕과 지혜가 갖추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외적으로는 권위와 위엄을 꾸미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비유는 단순히 개인의 위선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행 공동체 전체의 윤리적 신뢰와도 관련된다.

현대 사회에서 수행자는 다양한 제도와 매체, 사회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종교 활동은 대중적 영향력, 조직 운영, 교육과 포교, 재정 관리, 사회적 평판과 분리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자체가 곧바로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행자의 활동이 본래의 서원과 수행의 목적을 떠나 외적 성공과 인정, 권위의 확대를 향해 기울 때 발생한다. 이때 수행자는 외형적으로는 수행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명리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양질호피’의 위험에 노출된다.

휴정이 ‘명리납자’보다 ‘초의야인’을 높게 평가한 것은 수행자의 참된 가치를 외형적 지위나 사회적 명성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행자의 권위는 직함이나 규모, 대중적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명리를 떠난 마음의 청정성과 일상 속 실천의 진실성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현대 수행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윤리는 외적

성취의 확대가 아니라 내적 동기의 정직성이다. 수행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만큼이나, 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불교윤리학의 논의는 『선가귀감』의 명리 정책을 오늘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재해석하는 데 참고가 된다. 하비(Harvey, 2000)는 “업설이 과거에 대한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현재의 의도와 책임’을 성찰하게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강조하며 만약 현재의 불평등을 단순히 과거의 업보로만 수용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비판했던 숙명론(Niyati-vāda)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한다(Harvey, 2000: 23-25).

또한 로이(Loy, 2003)는 탐욕과 무명이 개인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Loy, 2003: 7-11). 이러한 논의는 현대 사회에서 수행자의 명리 추구가 개인의 내면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신뢰와 사회적 윤리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선가귀감』의 ‘양질호피’ 비유는 오늘날에도 수행 공동체의 자기 점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수행 공동체가 명예와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때, 불법은 세속적 성공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 반대로 명리의 유혹을 자각하고 그것을 경계할 때, 수행 공동체는 청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호피의 비판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수행 공동체가 외형과 내면, 권위와 실천, 명성과 청정성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수행윤리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3. ‘초의야인’의 수행윤리와 명리 차단의 실천

『선가귀감』 제60장에서 휴정은 명리를 좇는 남자보다 ‘초의야인’

의 삶을 더 높게 평가한다. 여기서 ‘초의야인’은 제도적 지위나 화려한 명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 이름과 이익에 물들지 않고 소박한 삶 속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지키는 존재이다. 이 대비는 수행자의 참된 가치를 외형적 신분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명리를 떠난 마음의 청정성과 실천의 진실성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

현대 사회에서 수행자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 속에 놓여 있다. 교육, 포교, 사회 활동, 기관 운영, 대중과의 소통은 오늘날 수행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커질수록 수행자는 자신의 행위가 서원과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름과 이익을 확대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의 중심이 본분에서 명리로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에서 ‘초의야인’의 수행윤리는 현실을 떠나는 은둔의 윤리라기보다, 명리의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에 끌려가지 않는 내적 지조의 윤리라 할 수 있다. ‘초의야인’은 세속적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을 꾸미지 않으며, 외형적 권위를 통해 수행자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소박함 속에서 본분을 지키고, 명예와 이익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음으로써 업화의 연료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초의야인’은 『선가귀감』이 제시하는 명리 차단 of 긍정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의야인’의 청렴한 삶을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역동성으로 완성하는 대안이 바로 『선가귀감』 제69장에 나타난 “죄가 있으면 곧 참회하고, 업을 일으켰으면 곧 참회하라(有罪卽懺悔 發業則慙愧)<sup>15)</sup>”는 경책이다. 유식학에서 참(慚)과 괴(愧)는 마음을 청정

15) 『禪家龜鑑』(X63, 461d), “有罪卽懺悔 發業卽慙愧 有丈夫氣象 又改過自新 罪隨心滅.”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선심소(善心所)로 분류된다. 수행자가 명리를 추구하는 찰나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내적 자각[慚]과 법도에 비추어 부끄러워하는 외적 자각[愧]을 구동하는 것은, ‘업화가신’의 치성한 불길을 즉각적으로 진화하는 실천적 소화기와 같은 것이다.

데이비드 로이나 켄 존스 등의 현대 서구 윤리학자들이 자본주의적 구조의 오염(제도적 업)을 비판하는 거시적 안목을 주었다면, 휴정은 제69장의 법문을 통해 수행자가 세속의 관성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땀감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미시적이고도 실제적인 주체성을 확립해 준다. 결국 참회와 참괴를 통한 실존적 부끄러움의 회복이야말로, 현대의 자본주의적 명리 유흥 속에서 수행자가 위선적 ‘양질호피’를 벗어던지고 청정한 ‘초의야인’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궁극의 수행윤리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명리 차단은 단순히 명예와 이익을 거부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적극적 실천이다. 명예와 이익이 수행자의 마음속에서 자기 확인과 소유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업화에 땀나무를 더하는 ‘가신’의 작용을 한다. 반대로 명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연료를 거두어들일 때, 수행자는 업화의 흐름을 약화시키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선가귀감』의 현대적 함의는 명리의 세계를 부정하고 현실을 떠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명리의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행위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다. 보시는 계산된 축적이 아니라 탐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되어야 하며, 수행자의 권위는 외형적 명성이 아니라 청정한 실천에서 나와야 한다. 이처럼 휴정의 명리 경책은 오늘날에도 수행자가 외적 명리보다 내적 청정성과 본분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수행윤리적 지침이 된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조선 중기 선불교의 중흥조인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 중 제57장부터 60장까지를 중심으로, 수행자의 실존을 위협하는 명리의 병통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업화가신’의 인과론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휴정이 제시한 경책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를 넘어, 수행자가 본래 지닌 청정한 마음인 ‘일물’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실천적 정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현대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화가신’은 수행의 존재론적 토대와 실천론적 정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인과 기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선가귀감』 전반부의 형이상학적 담론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후반부의 경책이 지닌 ‘인과적 필수성’에 주목하였다. 휴정은 명리를 경영하고 구하는 행위[營求世利]가 수행자의 내면에서 지혜의 물[慧水]을 증발시키고 번뇌의 불길[業火]을 치솟게 하는 실시간적인 ‘연료 공급[加薪]’임을 규명하였다. 이는 초기 불교의 「불타오름의 경」에서 설파된 삼독의 불길이 현대의 명예욕과 결합하여 어떻게 수행적 과멸을 이끄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수행자가 명리라는 빨감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 아니라, 인과론적으로 지혜를 발현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임을 본 연구는 증명하였다.

둘째, 업설을 숙명론적 체념의 프레임에서 ‘주체적 의도’와 ‘현재적 책임’의 영역으로 복원하였다. 현대인들이 흔히 업을 과거의 산물로 치부하며 현실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달리, 『선가귀감』은 업이 현재의 ‘의도적 욕망’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하비가 강조했듯, 업설은 과거를 정당

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현재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윤리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르침이다. 휴정이 강조한 ‘송상결조(松上結巢)’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세속의 관성에 저항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수행자의 주체적 결단이며, 이를 통해 업의 사슬로부터 주체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셋째, 명리 정책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침투한 현대 불교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실존적 준거가 된다. 현대의 종교적 실천이 미래의 환생을 위한 ‘계산된 투자’나 ‘공덕 쌓기’라는 명목의 자산 축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은 휴정이 경계한 ‘양질호피’의 실존적 위선과 궤를 같이한다. 붓다다사와 로이의 논의가 시사하듯이, 수행자가 명리를 좇으며 자신의 기득권을 정당화할 때, 현실에서의 고통은 개인의 업보로만 환원되고 그 배후에 있는 사회적 구조의 문제는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가귀감』의 명리 정책이 개인의 청빈에 머무르지 않고, 탐욕과 집착이 공동체 안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성찰하게 하며, 수행자의 삶이 보다 책임 있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지침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청허 휴정의 명리 정책은 460여 년 전의 역사적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세속적 가치가 수행의 영역에 깊이 개입하는 오늘날의 불교계에도 여전히 유효한 수행윤리적 성찰을 제공한다. 명리라는 땀감을 거두어 내면의 불길을 가라앉히는 일은 아상을 내려놓고, 본래 소소영영한 ‘일물’로 돌아가는 중요한 수행의 과정이다. 결국 수행자는 자신이 이미 무상과 번뇌의 불길 속에 놓여 있음을 자각하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듯한 절박한 자세로 명리라는 연료를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업화가신’의 악순환을 끊고 본래의 ‘일물’을 드러내는 수행론적 전환점이 된다.

본 연구가 규명한 ‘업화가신’의 논리 구조와 현대적 실천 담론이 수행자들로 하여금 본분사를 바로 세우고, 개인의 해탈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불교윤리의 방향을 성찰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AN: Aṅguttara-nikāya, PTS.

SN: Saṃyutta-nikāya, PTS.

T: 大正藏.

X: 卍新續藏.

『묘법연화경』, T09.

『대방광불화엄경』, T10.

『성유식론』, T31.

『선가귀감』, X63.

강신보. 2003. “『禪家龜鑑』에 나타난 禪과 念佛의 調和.” 『한국선학』 5: 123-162.

고영섭. 2017. “청허 휴정의 선교이해.” 『불교학보』 79: 133-158.

김영옥. 2010. 『정선 휴정』 서울: 대한불교조계종한국전통사상총서간행위원회출판부.

김용태. 2015. “청허 휴정과 조선후기 선과 화엄.” 『불교학보』 73: 63-90.

김준희. 2023. “『선가귀감』의 구조 분석을 통한 통합적 이해.” 『종교교육학연구』 72: 79-100.

김호귀. 2013. 『선가귀감』 서울: 하얀연꽃.

김호귀. 2015. “청허 휴정의 선교관 및 수증관.” 『범한철학』 79: 113-134.

박기남. 2020. “『선가귀감』과 현대적 수행의 一考.”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4: 303-336.

박재양·배규범. 2006. 『선가귀감』 서울: 예문서원.

- 법정. 1992. 『깨달음의 거울』 서울: 불일출판사.
- 신법인. 1982. “휴정의 사교입선관: 선가귀감(禪家龜鑑)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 123-142.
- 오다규기. 정병조 옮김. 2012. 『불교의 심층심리』. 서울: 현음사.
- 오종만. 2002. “『禪家龜鑑』에 나타난 禪淨雙修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정상. 1977. “선가귀감의 간행 유포고.” 『불교학보』 14: 161-172.
- 이병욱. 2020. “천태의 십승관법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간화선: 『선가귀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42: 211-249.
- 전준모. 2018. “자력과 타력의 양립문제: 淸虛 休靜의 『선가귀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 50: 1-30.
- 지안. 2011. 『마음속 부처 찾기: 선가귀감』 서울: 조계종출판사.
- Harvey, Peter. 2000. *An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Ken. 2003. *The New Social Face of Buddhism: An Alternative Sociopolitical Perspective*. Somerville, MA: Wisdom Publications.
- Loy, David R. 2003. *The Great Awakening: A Buddhist Social Theory*. Somerville, MA: Wisdom Publications.
- Queen, Christopher S. 2000. *Engaged Buddhism in the West*. Boston, Mass: Wisdom Publications.
- Watts, Jonathan S. 2014. *Rethinking karma*. Bangkok: 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논문 접수 : 2026.05.08. / 수정본 접수 : 2026.06.08. / 게재 승인 : 2026.06.23.)

---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Fame and Profit (名利) and the Fire of Karma (業火):

The Structure of Ethical Practice and the Admonition against Fame and Profit in Seonga-gwigam (禪家龜鑑)

Kang, Young-mi(Ven. Hyeon-su)

Lecturer, Joong-Ang Sangha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 structure of the ‘admonition against fame and profit (名利警策)’ and the metaphor of ‘adding fuel to the fire of karma (業火加薪)’ presented in Seonga-gwigam(禪家龜鑑) by Cheongheo Hyujeong (淸虛 休靜, 1520 – 1604), a leading Seon Buddhist master of the mid-Joseon period, and to examine its ethical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Buddhist practice.

Seonga-gwigam presents not only the ontological teaching of realizing the original pure mind referred to as ‘Ilmul (一物)’, but also practical guidelines for overcoming the various obstacles and attachments arising in the process of cultivation. In particular, Chapters 57 through 60 sequentially address the original purpose of monastic life, the urgency of practice, warnings against attachment to fame and profit, and the identity of the practitioner. Among them, the metaphor

of “adding fuel to the fire of karma” in Chapter 59 illustrates how the pursuit of worldly fame and profit intensifies the flames of afflictive karma and weakens the practitioner’s wisdom. This interpretation suggests that karma should not be understood merely as the result of past actions, but as a teaching that encourages reflection on one’s present conduct and state of mind.

This study further examines Hyujeong’s admonition against fame and profit in relation to early Buddhist theories of karma and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modern tendency for even religious practices to be transformed into means of economic value and social recognition, which is 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Hyujeong’s criticism of the ‘sheep in tiger’s skin (羊質虎皮)’.

In conclusion, the admonition against fame and profit in Seonga-gwigam serves as an ethical guideline for preserving the practitioner’s identity in a modern society where secular values deeply penetrate the sphere of religious practice. The logic of ‘adding fuel to the fire of karma’ emphasizes that practitioners must cut off the fuel of greed and attachment in order to end the vicious cycle of karma and recover the original ‘Ilmul’.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possibility of a contemporary Buddhist ethics in which personal cultivation and social ethics are harmoniously integrated.

Key Words: Seonga-gwigam, Adding Fuel to the Fire of Karma, Critique of Fame and Profit, Buddhist Ethics, Buddhist Theory of Personality